

새로운 노트

2025.05.21 수 오후 6:19 · 39분 23초

이태수

참석자 1 00:00

3개 수집 데이터 설계 문서 데이터 조회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는 인공 결과서 이거는 세계 맞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델링 및 평가는 소프트웨어

참석자 2 00:18

소리 들어가지 말라고

참석자 1 00:19

그다음에 자체 인공지능 자체 인공지능은 이 팀은 필요 없는 거죠.

네 그다음에 그럼 이게 맞고 시스템 아키텍처 한 둘 셋 넷 수집된 데이터 전처리 문서가 왜 여기 있지?

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구나 똑같구나. 마지막에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 설계서 그다음에 개발된 연동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도 맞네요.

이렇게 하고 일단 이거를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.

네

참석자 1 01:11

우리 명단이 누구누구 있었죠? 잠깐만 잠시만요.

남궁승원 님 김정은 님 정규 PD 님 동 님 저희 주제가 이제 그러면 최종으로 한게 LLM 활용 이걸로 감사합니다.

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이걸로 일단 제출은 할게요.

참석자 3 01:53

네네.

참석자 1 01:54

그리고 일단은 준비한 거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참석자 3 02:00

네 알겠습니다. 혹시 잘 보이실까요?

참석자 1 02:07

네네 잘 보입니다.

참석자 3 02:10

저희가 저번에 멘토님이 저희에게 요청해 주신 내용을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.

네 네네 처음부터 보여드려도 될까요? 네네 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4 02:28

앞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.

참석자 3 02:37

시스템 아키텍처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

참석자 1 02:41

잠깐만 확대 좀 해주세요. 네 네

참석자 1 02:57

저 UI가 넥스트 JS라고 했는데 지금 학원에서 원하는 게 저거 맞아요 아니면 상관없어요.

참석자 5 03:07

학원에서 프론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.

참석자 1 03:16

다행이다. 다행히

참석자 6 03:21

그래도 텍스트 모델 AI 서비 슬러그 mm 2 쇼핑

참석자 1 03:38

트루퍼 코딩은 로컬에 배포를 할 건가

참석자 5 03:44

저희 랩 그래프 내에서 깃허브 에이전트 원 관련 툴들 노드로 정의하거나

참석자 1 03:54

풀 방식으로 그러니까 로컬에 그냥 내부 함수로 구현을 해놓는 거라는 거죠.

네 그러면 저거를 툴 풀 콜링 하는 것보다 우리가 AI 서비스를 API로 묶어놓고 로컬 기반으로 묶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

그러면 그걸 일단 시범 보여. 그러니까 API로 호출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레그 사내 문서 이런 것들 레그 있잖아요.

그런 것들을 이제 로컬에서 하는 거는 로컬 쪽으로 묶어놓고 아니면 이제 이거 다 다 로컬이겠네.

다 다 로컬에서 하면 레그는 API가 아니겠다 그러면 그냥 레그를 해놓는데 AI

서비스가 이제

참석자 1 04:53

약간 애매한데

참석자 1 05:18

AI 서비스를 레그랑 ML 기반 저걸로 묶어놓고 오른쪽에 툴을 하나 빼가지고 그 툴에다가 이제 정확한 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

ML 기반 예측 툴이라든지 코딩 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
풀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의를 좀 적어놓으면 될까요?

그게 좀 더 뭔가 눈에 보일 것 같긴 한데요. 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1 05:48

잠시

참석자 1 05:55

잠깐만요. 잠깐 먼저 참고 좀 해볼게요.

참석자 1 06:24

저 레그 솔루션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없어도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.

그리고 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. 그 툴들에서 레그를 지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 저렇게 사내 문서들로 해가지고 DB를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 거기에 막 툴들에 대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.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1 06:59

이 오른쪽 빈 부분에 대해서 툴들 적어 네 그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
지금 우리 막 네 알겠습니다. 툴들 툴들 많잖아요.
그거 싹 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. 사내 문서도 있고 프로덕트도 있고 여러 개 많으니까 싹 다 그다음에

참석자 1 07:25

AI 서비스는 빠도 될 것 같고 이게 제 거랑 싱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빠도 될 것 같아요.
예 맞습니다. 왜냐하면 저거는 플랫폼에서 사용한 걸 적는 거여 가지고 저런 식으로 쓴 건데 이거는 이거는 그건 날려도 될 것 같아요.

참석자 1 07:56

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?

참석자 5 07:59

네 지금 작업하겠습니다.

참석자 1 08:03

네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

참석자 4 08:28

시장 분야 명 시장에서는 저희도 시작했으니까

참석자 1 08:39

그런 식으로

참석자 1 08:45

그중에서 레그가 필요한 것들은 밑에 3개를 묶어가지고 저 사대 문서들 파인 콘 디비 이렇게 점점점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4 08:56

말씀하시

참석자 4 09:14

했는데 이런 사람이 작업을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아나 이한테 타임라인으로 갈 거 이 각각의 각각의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기대가 좀 계속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

참석자 1 12:03

맞네

참석자 1 12:09

아

참석자 1 12:23

크게

참석자 5 12:25

풀들 정리하면 이게

참석자 1 12:27

오케이 오케이 그럼 사내 문서들 저거는 내려서 사내 문서 레그 옆에 붙이고 이거 네 알겠습니다.

그리고 저 툴 풀 코딩 돼 있는 거 저것도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고 위에 그냥 툴이라고 하나 해놓던가 아니면 그걸로 툴이라고 해두던가 그 동그란 걸로

참석자 1 13:02

거기는 그냥 툴 잡고 야 어디 갔어 전달해 준다. 그리고 이거

참석자 3 13:16

너 어디 갔어?

참석자 1 13:33

개인적으로 에이전트가 가운데 오고 사용 모델이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가운데서 모델을 호출하고 그다음에 툴도 호출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은 뭔가 그게 관계성이 없어 보여서 저 인베딩 사용 모델 및 알고리즘이랑 툴 자세한 저기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

참석자 1 14:24

왼쪽으로 그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. 그 동그란 것들은 지금 거기 있는 툴들은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.

그러면 사각형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에이전트를 가운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

참석자 1 15:08

좋다. 좋다.

참석자 1 15:14

그리고 에이전트에는 화살표를 왔다 갔다로 하나 만들어주고

참석자 1 15:43

뭔가 화살표 하나로 양쪽 방향으로 하니까 별로 안 와닿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.

네 알겠습니다. 근데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

장표 자극 저도 근데 회사 오니까 이걸 해야 되더라.

왜냐하면 무조건 처음 본 사람도 이해가 편해야 돼.

참석자 1 16:11

저 여기 포스트 그레 SQL은 왜 에이전트에 붙어 있지?

참석자 5 16:17

장고 쪽이랑 붙여놔가지고 일단

참석자 1 16:22

뭔가 좀 애매한데 애매합니까? 정형 웬만한 건 3에 다 저장할 수 있잖아요.

비정형 문서는 포스트 그레이드 저기는 어떤 거 SQL 하려고 저랬어요.

그 텍스트 SQL 할 때

참석자 5 16:44

저희 세션 정보나 메시지 정보

참석자 1 16:50

로깅할 때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냥 저렇게만 따로 뭔가가 밑에 있으니까 멀어 보이고 사각형으로 같이 묶어놓는 게 나올 것 같아요.

참석자 1 17:12

사각형으로 보면은 이걸

참석자 5 17:15

시켜서 안쪽에 넣어.

참석자 1 17:16

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SQL에 담기는 게 아니고 버킷 같은 데 담기는 거죠.

정확하게는 오케 왜냐하면 실제 회사에서 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제이슨이나 이런 걸로 자꾸 떨어지잖아요.

그게 어떤 이제 미나이오나 아니면 s3나 이런 데 저장이 되는 거니까 SQL은 말 그대로 이제 호출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.

참석자 3 18:04

그럼 저 팀장님 eid eid 보여드려도 될까요?

네

참석자 3 18:42

어디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?

참석자 1 18:57

이렇게 로그 테이블을 남길 거다.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 대부분 이제 텍스트는 비병형 로그로 많이 바뀌거든요.

왜냐하면 대용량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런 하둡 같은 이런 큰 버킷을 자꾸 쌓아요.

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그걸 나중에 떨어뜨리려면 그럴 수도 있겠네.
일단 예 설명해 주셔도 돼요. 네네

참석자 5 19:46

저희 일단 어카운트 앱을

참석자 1 19:51

저 유저 관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예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.
네네.

참석자 5 20:01

올가니제이션 쪽을 사내 부서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유저 쪽에는
일단 제가 일단 유저의 룰 쪽에는 엔지니어나 어드민 아니면 디자이너 그런 식
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놓았는데

참석자 1 20:42

네네네.

참석자 5 20:46

나머지 컬럼 같은 경우에는 권한 설정 부분이어 가지고

참석자 1 20:52

나머지 테이블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. 설명.

참석자 3 20:56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3 21:01

제가

참석자 5 21:02

해당 앱은 퍼세이션 앱이고 세션 메시지 그리고 해당 세션에서 II의 어떤 양을 썼는지 로깅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줬는데

참석자 5 21:33

채팅 세션의 에이전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저가 쓴 에이전트 타입을 일단 저장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

참석자 1 21:53

이해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웬만한 이제 태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나 여러 데이터들을 많이 하니까 비용 절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전체 로그를 다 s3 같은 데 다 담기거든요.

그래서 s3는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. 그런 이제 외부 저장소에 맞는 거죠.

그래야 이제 추후에 이제 확장성도 있고 왜냐하면 DB는 이제 내부니까 용량이나 제한이 있잖아요.

만약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배포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s3 굳이 쓸 거면 거기에 다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

폴더를 나눠서

참석자 5 22:47

전부 s3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면은 저희가 AWS가 총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

는데

참석자 1 22:58

그렇군요. 근데 별로 안 쌓이지 않나요? 로그 한두 개 정도 근데 굳이 굳이 그거 써도 상관없어요.

그냥 혹시나 저도 궁금해서 일단 여쭙본 거여서

참석자 5 23:15

일단은 제가 해당 erd대로 AWS ec2에다가 브류 티어로 일단 올려놓았는데 여지껏 프로젝트 하면서 적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 그리에다가 저장을 해놔서 가지고

참석자 1 23:34

그래요. 그렇게 또 배운 거죠. 그렇게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.

이거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거지 않냐라고 생각한 거라서 근데 포스트 그냥 쓰는 데도 많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

일단 예 그다음 다른 테이블 또 뭐가 있죠? 지금 LLM이랑 채팅 쪽 있고

참석자 5 23:57

이거는 s3 s3 어느 저장 경로의 저희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지 같은 거 지정을 해놓았고 그리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나 여타 데이터들로 결과를 도출을 하였을 때 저기 인서트 테이블에다가 일단 따로 저장을 해놓는 식으로 어 이것도 s3에다가 따로 업로드를 해놓고 나중에 해당 키로 필요할 때 다시 로드해서 쓰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

참석자 6 24:51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5 25:03

해당 앱은 일단 임베딩 관련된 쪽 기능들로 정의를 해놓았고 레포지터리와 그 레포지터리 안에 있는 코드 파일들 그리고 레포지터리 코드들 말고도 사내 문서들의 도큐먼트 같은 거 s3 더블로그와 함께 저장을 해놓고 타인 폰 DB 아이디로 어디에 체크가 저장되었는지까지 둘 다 매핑을 인베드 체크 쪽에 해놓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

참석자 1 25:46

일단 대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포스트에서 마이스톤을 쓰니까 저는 그 좋은 것 같아요.

이해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비정형 로그만 있을 줄 알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가면 저런 것도 있을 거니까요.

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착각했습니다. 네 이해했습니다.

참석자 1 26:11

그리고 에이전트 이렇게 하고 에이전트에서 빼고 이거는 그러면 SQL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랑 묶어야 되지 않나 어플리케이션이요 포스트 그래 SQL 쪽은 애플리케이션이랑 이제 회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거니까

참석자 5 26:34

UI 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요? 이쪽에 UI 플릭 게시판이긴 한데

참석자 1 26:40

UI 쪽 아니면 중간에 하나 단을 더 만들어서 그냥 d 정보 그거를 하나 빼놓던가 거기에 이제 그거를 엮어 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.

뭔가 에이전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돼 보여서

참석자 1 27:22

네 그런 식으로

참석자 1 27:36

그냥 그 위에 웹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을 거

참석자 5 27:41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5 27:55

반갑습니다. 둘

참석자 1 27:57

아마 설명할 때 이 장 그냥 몇 초 안 가고 그냥 금방 지나갈 건데 사실 이번 최종 발표 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취업을 해가지고 고객사한테 쓰잖아요.

막상 고객사들한테 발표할 때도 이거 한 1초면 그냥 2 3초면 1분 안에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.

근데 PPT를 항상 고객사한테 전달을 해줘요.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다시 보거든요.

그때 그 진가가 발휘돼요.

참석자 1 28:28

많이 보신 분들은 딱 보기만 해도 저게 대충 이거구나 알겠는데 아예 이런 쪽에 관심이 없거나 이제 이제 고객사 쪽에서는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면 좀 이해를 하기 편하거나 아니면 좀 따로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

그런 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거 저도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왜 해야 되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업 쪽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.

참석자 1 29:22

여기 AI 엔지니어 이름을 빼도 되겠다

참석자 7 29:25

하고 투자하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교육이 하 아까 이 사진들이

참석자 1 29:34

사내 문서 레그 쪽에는 저게 강조가 되긴 돼야 되는데 파인 콘 팀이랑 툴 하나만 이렇게 좀 빼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레그 툴

참석자 1 29:54

아니면 화살표를 거기만 연결하던가

참석자 1 30:02

미안합니다.

참석자 1 30:17

사내 문서들을 DB에 연결하는 것처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
이거는 2학기 때처럼 그런 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.

참석자 3 30:40

그럼 애가 나가야 되잖아

참석자 1 31:30

그러면 대략적으로는 다 된 거겠조 나중에 좀 크거나 이런 것만 나중에 좀 예쁘게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.

네 이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혹시나 이거 좀 보기 좋게만 좀 꾸며주세요.

네 네 이제 다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.

참석자 3 31:51

네 이제 다음에 흐름도 보여드릴게요. 네네. 저번에 멘토님들 면담하면서 정했던 에이전트 분기점들이랑 다 분기점들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여기서 적어놨어요.

참석자 1 32:07

혹시 이거 네 이거 따로 내부적으로 리뷰를 했어요.

강사님이나 이런 분이냐

참석자 3 32:14

네 강사님이랑 피드백 한 번 받긴 했습니다.

참석자 1 32:20

뭐래요?

참석자 1 32:26

강사님께서서는 일단은

참석자 3 32:30

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게 들어갈 건지 또 적절히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보.

참석자 1 32:34

이런 흐름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.

네. 오케이 오케이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하니까.

참석자 3 32:45

네 그리고 여기는 또 따로 정리한

참석자 2 32:48

오늘 들은 얘기는 내용을 생각해야 된다고 많아서요.

이때까지 저희가 혼

참석자 1 32:57

오른쪽 거를 축소해 놓은 거죠.

참석자 5 33:01

네네네 네네네

참석자 1 33:06

오른쪽 걸 다시 한 번 보여줄래요.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오른쪽 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.

이거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코드 서치 인풋 도큐먼트 코드 컨버전

참석자 1 33:26

오케이 그러면 저쪽에서 이거 디바이드 에이전트 일부만 보여줘 봐.

참석자 1 33:42

리졸트 어그리게이터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결과 다 합칠 거 아니잖아요

참석자 5 33:52

네 맞습니다. 이것도 LD 서버 라이저로 통일할까요?

참석자 1 33:56

예 각자 이제 이제 하나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그냥 리졸트만 나온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.

네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다 따로 다른 요청이니까 뭔가 이거 그래프가 다 아니다.

뭔가 모이는 것처럼 보이냐

참석자 1 34:30

그리고 두 번째가 클라우드 예 오케이 프로덕트 KT 클라우드 프로덕트 KT 클라우드 프로덕트가 뭐가 있어요?

참석자 3 34:41

데이터 셋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?

참석자 1 34:45

네네 잠깐 일단 저거 저거부터 다 보고 제가 데이터 인터넷 플리스 프론트 다시 저거 보여주세요.

다시 중앙 작은 거 네

참석자 1 35:09

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

참석자 7 35:14

그러면은 그러면 잠시만 이거는

참석자 1 35:16

카테고리 칼에서 시계열하고 비주얼이 둘 다 비주얼라이저로 간다고

참석자 8 35:24

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그거를

참석자 1 35:31

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. 뭐예요? 마지막에 그냥 이게 끝 그때 둘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하나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고 하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나는 그냥 그냥 예측만 요청하는 거 그러면 예측한 거에 대한 답변이랑 보고서가 나오는 거 하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야 될

참석자 3 35:55

사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월요일에 간단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카테고리칼 예측이랑 시계 예측이랑 굳이 하나만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

참석자 1 36:11

나 하나만 하면 안 되냐라고요.

참석자 3 36:14

아니 왜 두 개를 안 하고 왜 하나만 하나 그랬었어요.

그 질문을

참석자 1 36:20

두 개로 나눈 건 좋아요. 근데 둘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인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림 이렇게 하면 되겠다.

시계열이든 카테고리 컬이든 두 개 다 머신러닝 모델인데 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있고 네 다시 다시 카테고리 커리랑 시계열이랑 머신러닝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리포트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줘 하면 그냥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해주는 그러니까 RDMS에 SQL 텍스트 SQL 쿼리를 달려가지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DB를 뽑아오고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이 두 개의 분기를 그때 말한 거였거든요.

지금 둘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가는데 예측 모델은 따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

참석자 3 37:08

그러면 이 세 번째 에이전트의 새로운 분기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?

참석자 1 37:14

그렇게 하면 세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위에를 한 개 묶음으로 1번으로 보고 밑에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.

네 근데 그거는 위에 이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필요 없고 그냥 예측에 대한 답변 결과를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

참석자 3 37:30

알겠습니다. 수정하고 싶어 수정하고 싶어

참석자 3 37:46

클릭이 안 돼.

참석자 1 37:56

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전에 텍스트 SQL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면 돼.

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위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리포트 포맷으로 이제 내뱉어주는 그걸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.

리포팅을 한다든지

참석자 1 38:47

됐다. 됐다. 왼쪽 것도 그렇게 꾸미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셋은 일단 좀 쉬고 들어보도록 하죠.

참석자 3 39:00

네 알겠습니다.

참석자 1 39:01

혹시 뭐 좀 드시고 오세요. 밑에 편의점이라도 가셔서

참석자 3 39:10

그러면은 언제 다시 돌아가

참석자 1 39:13

한 7시 25분쯤 그 정도면 할 수 있나요? 네 네 알겠습니다.

그때 일단 말을 해 주세요. 네.

clovanote.naver.com